

##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의 사료적가치

김 송 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일정한 역사적환경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사람들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나 리론, 역사적사실과 유적유물들입니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기간 훌륭한 민족문화유산들을 수많이 창조하였다. 민족고전들은 우리의 민족문화유산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은 1759년 김량기가 1627년 후금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운 소위포(오늘의 평안북도 룡천지방)인민들의 투쟁사실을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일기체형식의 책이다.

이 책은 서문과 소위포창의진도, 참의공년보, 소위포창의록,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문에는 1759년에 쓴 리익정의 서문, 1816년에 쓴 차신용의 서문을 비롯하여 4개의 서문이 들어있다.

소위포창의진도에는 당시 소위포의 위치와 령역, 자연지리적특성이 서술되어있다.

참의공년보에는 김우의 생애와 관련한 사실들이 년도별로 기록되어있다.

부록에는 창의대장 김우, 참모 안극함, 행영대장 장우를 비롯하여 103명의 인물들에 대한 개인자료가 들어있다.

이 책의 기본본문격인 소위포창의록에는 소위포지방인민들이 1627년 1월 적의 1차침입으로부터 적들이 종국적으로 퇴각한 8월까지의 기간에 진행한 수십여차의 크고작은 전투들에 대하여 일기체형식으로 썬여져있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은 력사학을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과 중세 우리 나라에서 사각본문헌간행정형을 리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있는 귀중한 민족고전이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의 사료적가치는 첫째로, 력사학을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풍부히 제공한다는데 있다.

《소위포창의록》에는 무엇보다먼저 후금의 1차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서북지방 인민들의 투쟁자료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우선 소위포인민들의 의병투쟁에 대한 자료가 상세히 서술되어있다.

소위포지방인민들의 의병투쟁자료는 조선봉건왕조실록에는 별로 없고 다만 《룡만지》를 비롯한 지방지들과 비명들에만 약간 소개되어 전해지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실록에도 당시 소위포지방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투쟁내용에 대하여 기록되어있기는 하지만 《소위포창의록》에서만큼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소위포창의록》에는 당시 룡천지방에서 조직되었던 소위포의병부대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상세히 밝혀져있다.

《소위포창의록》에는 의병부대의 편제와 조직지휘체계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어있다.

여기서는 3 700명으로서 부대를 20초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병장을 직접 도와 전투 계획을 작성하는 인원만 하여도 10여명, 찬모, 참모, 영장, 수문장, 수사장, 정탐장, 천총, 파총, 척후장, 도룡도장, 포수장, 복병장 등 75명에 이르는 지휘성원들을 서술함으로써 당시 잘 짜인 의병부대의 지휘체계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소위포창의록》은 당시 소위포에서 조직되었던 의병부대의 편제와 지휘체계뿐 아니라 의병부대의 규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소위포창의록》은 소위포의병부대의 활동정형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소위포지방에서 의병부대가 조직된 이후 각 고을들에서 군량과 화살을 비롯한 병기들도 모아들이는 등 싸움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는것은 그 실례이다.

또한 룡골산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정봉수의병부대의 투쟁에 대한 자료도 들어있다.

적의 강점초기인 2월초에 룡골산성을 중심으로 철산, 룡천부근 인민들은 의병장 정봉수의 지휘밑에 침략자들을 기습하여 섬멸적인 타격을 주었다.

정봉수는 임진조국전쟁시기에 무관으로 전투에 참가하여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1627년에 후금침략자들이 침공하자 또다시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룡골산성에서 인민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켰다.

1627년 2월 27일 정봉수가 룡골산성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곳침사 장사준이 이미 침략자들에게 투항한 때였으므로 성안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정봉수를 의병장으로 내세웠다. 정봉수는 부근의 애국적인민들과 분산된 군인들 4 000여명을 룡골산성에 집결시킨 다음 김종민을 의병중군으로, 리광립을 부장으로, 안운신을 남문장으로, 리촉립을 군량감으로, 김덕순을 수첩장으로, 백위와 리중립, 리선립 및 리중헌을 유군장으로, 손의경을 의병천총으로 하는 전투지휘부를 꾸리고 의병부대를 편성하였다. 그리하여 룡골산성을 본거지로 하는 정봉수의병부대가 조직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3월 17일 적들은 의주, 창성, 꾀산 등지에 등지를 틀고있던 저들의 군대를 끌어다 성 밑에 집결시켜놓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5차례나 공격하였으나 성안의 군인들과 인민들의 애국적투쟁으로 그때마다 된매를 맞고 질겁하여 도망치고말았다.

4월 3일에도 룡골산성의 의병들은 다시 공격하여온 침략군과 맹렬한 싸움을 벌려 적병력의 절반이상을 섬멸하는 커다란 전과를 거두었다.

그후에도 4월 13일을 비롯하여 여러번 룡골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의병들을 도저히 굴복시킬수 없다고 타산한 적들은 마침내 의주방면으로 도망치고말았다.

정봉수의병부대의 투쟁은 그해 7월까지 줄기차게 벌어졌다.

룡골산성의 애국적의병들은 식량과 무기가 부족하고 전투경험이 많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심을 안고 인원수에서나 군사장비에서 우세한 적과 맞서 끝까지 싸움으로써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기개를 시위하였으며 자기의 향토를 끝까지 지켜냈다.

《소위포창의록》에는 이밖에도 장린의병부대의 투쟁자료도 들어있다.

이처럼 《소위포창의록》은 소위포의병부대뿐아니라 정봉수의병부대와 장린의병부대의 투쟁자료를 실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반침략의병투쟁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가치

를 가진다.

《소위포창의록》에는 다음으로 17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다.

우선 《화의》가 성립된 후 우리 나라와 녀진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조약체결후 녀진족들은 일정한 기간 우리 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나라 사람 수천명을 《포로》라고 하여 몽골족 장수로 하여금 거느리고 본국에 들어가게 하였다.

의병부대는 녀진말을 잘하는 사람 몇명을 끌라 그들속에 파견하여 우리 사람들을 탈환하여오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었다.

책에는 당시에 《포로》들을 탈환하여온 과정과 그 수자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또한 당시 명나라 잔존세력인 모문룡부대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있던 사실이 구체적으로 실려있다.

《소위포창의록》에는 다음으로 17세기 전반기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 특히 리두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들이 들어있다.

《소위포창의록》에 들어있는 장계문들과 보고서들은 전반적으로 리두로 작성하였다. 리두토를 사용하고 일부 고장어들이 리두로 표기되어있으며 리두어휘도 일정하게 리용되었다.

책에는 《爲白良》(하삽아, -하읍시여), 《是白齊》(이삽제, -입니다), 《爲乎脉》(하오며, -하며), 《爲去等》(하거든, -하니까)와 같은 70여개의 리두토들과 《仍于》(지즈로, -으로 인하여), 《銓次》(전차)와 같은 10여개의 리두어휘들이 들어있으며 리두문장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리충무공전서》, 《농포집》과 함께 《소위포창의록》은 대표적인 리두연구자료의 하나로 되고있다.

《소위포창의록》에 반영되어있는 자료들은 력사학을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그 가치는 자못 크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의 사료적가치는 둘째로, 중세 우리 나라에서 사각본문헌간 행정형을 리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세에 간행된 문헌들에는 사각본도 있다.

사각본이란 개별적인 사람이나 가문에서 간행한 책을 말한다.

봉건국가의 도서관행기관인 교서관에서는 국왕의 지시나 특별한 경우에만 도서를 간행한다. 지방관청에서 간혹 문헌을 간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봉건국가의 지시에 따른것이기에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편찬한 문헌을 간행한다는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집안의 족보나 선조들이 쓴 글을 묶어서 간행하는 경우에는 흔히 개인이나 개별적인 가문에서 자체의 재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간행된 책이 사각본이다.

《소위포창의록》은 김우의 후손들이 선조의 애국적인 활동정형을 소개할 목적에서 간행한 전형적인 사각본이다. 그러므로 《소위포창의록》은 중세 말기에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사각본문헌의 출판과정을 보여주는 문헌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각본은 대체로 편찬기간이 오래고 그 간행이 매우 어려운것이 특징적이다.

《소위포창의록》은 1759년에 처음으로 편찬하였으나 인차 간행되지 못하였으며 그후 여러번 시도하였다가 결국은 네번째만인 1825년에야 비로소 간행할수 있었다.

사각본은 또한 판본의 질이 높지 못한것이 특징적이다.

문헌편찬력사가 오래고 인쇄의 질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우리 나라에서 판각본이나 사찰본은 비교적 정교하고 오류가 없지만 사각본인 경우에는 활자의 질이 나쁘고 오기, 전도 등 출판과정에 생긴 결함이 많다.

《소위포창의록》에는 오기와 탈자가 있을뿐아니라 잘못 들어간 글자가 대단히 많다.

그러나 《소위포창의록》은 우리 나라 중세말기에 나온 사각본의 면모를 비교적 그대로 보여주고있어 우리 나라의 문헌편찬정형을 리해하는데 참고가 된다.

이처럼 《소위포창의록》은 민족고전으로서의 특징적인 측면들을 가지고있어 우리 나라 중세 문헌학, 판본의 종류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된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은 당시의 시대적제한성과 저자의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첫째로, 책에 반영된 의병투쟁자료들에 사대주의적표현이 들어있는것이다.

이 책에 기록되어있는 년대는 거의나 《천계》, 《승정》 등 명나라의 년호를 그대로 쓰고있다.

부족점은 둘째로, 룡천지방에 침입한 침략자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발휘한 인민대중의 역할을 부각시키지 못한것이다.

1627년 후금침략자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싸운 소위포의병들이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의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그러나 책에서는 인민들의 투쟁성파를 김우, 리립을 비롯한 몇몇 장수들의 의분과 격한 감정의 분출로 하여 이루어진것으로 묘사하고있다.

민족고전 《소위포창의록》은 이러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지만 력사학을 비롯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료들과 중세 우리 나라에서 사각본문헌간행정형을 리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된다.